**우도 신궁: 신교(神橋)**

신교를 건너면 그 너머에 우도 신궁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서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에 도착합니다. 혼덴은 가파른 바위 계단을 내려가면 보이는 동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배를 하기 위해 다리 옆에서 신발을 벗고 혼덴까지 맨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신성한 땅이 바깥 세계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풍습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신교를 건넌 후에는 성지에 걸맞은 경건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리 가까이에서 혼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참배길 왼쪽에는 수많은 석등롱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등롱은 오비번(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해안 지방)의 번주이자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이 봉납한 것입니다. 이토 가문은 에도 시대(1603-1867), 우도 신궁을 숭배하여 신궁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등롱의 불빛을 밝히는 부분은 월상(月相)을 나타내며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밑에는 하나의 원이 9개의 작은 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도 불교 사상의 우주를 나타내는 이토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